

순정이

연중 제30주일

제 1 독서 : 집회35,12-14,16-18

제 2 독서 : 2디모4,6-8,16-18

복 음 : 루가 18,9-14

“오, 하느님!

죄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루가 18,13).

강론

“전교와 기도”

나춘성 신부 / 순창 천주교회

포교 사업의 수호자 예수 아기의 성테레사 대축일을 시작으로 한 전교의 달 10월이 이제 한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는 왜 많은 성인 성녀 중에서 소화 테레사 성녀를 포교 사업의 수호자로 삼았으며, 왜 전교의 달 첫날을 축일로 정했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녀의 일생은 병으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병과 고통을 하소연하며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을 아는 위대한 삶의 덕분이었습니다. 영혼을 구하고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수녀원에 들어왔다고 말한 소화 테레사 성녀는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자신의 고통을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복음선교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왜 축일이 지난 지도 한달이 다 되어가는 소화 테레사 성녀의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잠깐 연중 28주일(루가 17, 11-19), 29주일(18, 1-8) 그리고 이번 주의 복음(18, 9-14)을 잠시 되새겨 묵상해보십시오. 그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모두 기도의 자세와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선교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일생을 끊임없이 기도와 희생을 바친-비록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과 행동을 통해 전교한 것은 아니지만-소화 테레사 성녀의 삶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교의 달을 보내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행동에 앞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교를 위한 행동에 앞서서 기도해야 함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많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거의 전부는 자신만을 위해 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식합니다. 청할 줄만 알았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너무 적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며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전교의 달을 이제 며칠 남기지 않은 우리들, 결국 10월 한달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복음선교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리

“그래도 희망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산림청이 조림 목적 이외의 사업에 대부한 산림이 1천1백89만평이나 된다고 한다. 골프장·콘도·스키장·호텔도 좋지만, 누가 무어라 해도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산림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일을 주관하는 산림청이 엉뚱하게도 산림을 훼손하는 일을 했더니, 고양이에게 반찬가게를 맡긴 꼴이 되고 만 셈이다.

어디 그뿐인가? 국민의 건강관리에 힘을 써야 할 보건사회부 산하 국립 검역소는 농약에 범벅된 밀을 통관시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 밀로 생산한 8백여톤의 밀가루가 유명 제과회사와 주류 제조업체에 공급되었다고 한다. 결국 국민들은 농약이 든 빵과 술을 먹으며 산 셈이다. 이 지경에 이르르고 보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우스개 같은 말이 실감난다.

훼손되는 산림이나 농약 범벅 밀가루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문제다. 물론 거기에는 제 배만 차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갈지도 않은 모리배들의 음흉한 흥계가 도사리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길래 그러고도 숨을 쉬고 사는지 모르겠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비정한 현실들을 보자면 세상 살맛이 짝 가시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자기만큼이나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 卍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16

“다시는 전처럼 온갖 산 것들을 멸하지 않으리라” (창세기 8장)

하느님은 노아와 방주에 탄 모든 생물을 기억하시어 물이 빠지도록 바람을 일으키신다.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분의 성실한 사랑과 계속되는 중재하심을 의미한다(예레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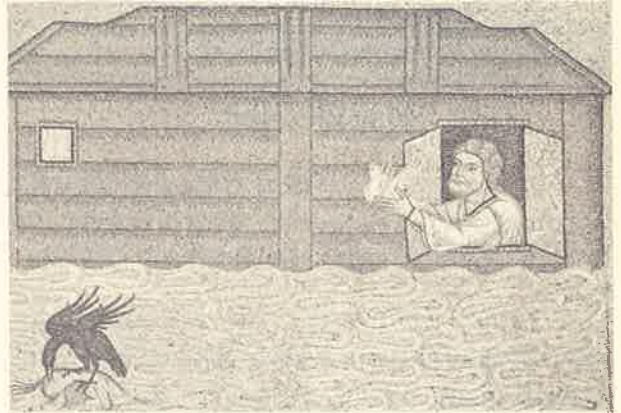
땅 밑 물줄기와 하늘의 창문이 막히고 내리던 비도 멎게 하셨다. 노아의 방주는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 150일, 정확하게 5달 만에 ‘아라랏산’에 도착한다. 이 산은 약 5천미터의 높이를 가진 ‘뽀’이라는 호수 가까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아르메니아에 위치한 ‘우라루트’산을 가리킨다. 히브리인들에겐 이 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었다.

노아는 물이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방주의 지붕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낸다. 노아는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새잎을 보고 물이 줄어든 줄 알고 일 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낸다. 비둘기가 끝내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땅이 마른 줄 알았다. 야훼스트의 기록에 의하면 홍수가 시작된 지 40일과 세 이레가 지난 후였다. 노아는 지루하지만 하느님의 시간에 맞추어 나와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력 정월 초하루, 양력으로 2월 27일은 한해를 시작하는 날이다. 이날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배에서 나오라고 명하신다.

재난에서 살아 남은 노아는 하느님께 제단을 쌓고 정한 들짐승, 정한 새 가운데 번제물을 골라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운다. 이 번제는 보통 공경, 봉헌, 속죄의 의미를 포함하는 제사이다. 노아가 방주생활에서 풀려난 후 첫번째 보여주었던 행위는 해방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하느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마음이 풀어지신다. 그리고 인간이 근본부터 비뚤어져 나간다는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땅을 저주하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를 다시는 대량 학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이라는 흔저 말씀은 악에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신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모습

다는 뜻이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는 곧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은 저주를 받아 소출을 내는데 인색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시는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지 않으리라.”는 하느님의 독백에서 ‘짐승’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다. ‘모든 짐승’이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것’으로 번역해야 마땅하다. 여기서 ‘살아 있는 것’이란 인간과 짐승을 가리킨다.

하느님의 독백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끝나지 않고, 절기와 기후의 변화, 사계의 구분, 밤낮의 뒤바뀐 안에 고정시켜 놓겠다는 결정으로까지 발전한다. 인간은 이제 때의 징조를 미리 알아보고 홍수나 가뭄에 보다 쉽게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노아의 인내와 충직한 태도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야훼스트 문헌에 의하면 61일, 사계제 문헌에 의하면 일년 열 하루를 방주에서 간혀 살아야 했던 노아지만 그는 하느님만을 의지하며 명령을 기다렸다.

노아는 배에서 뛰쳐나와 해방의 기쁨보다는 하느님께 제사를 바쳤다. 이제 하느님은 그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다.

개업
비사벌 온천이용원
 남성 아이롱 퍼머 전문집
 박 철 호(그레고리오)
 고사동 보건소 사거리
 ☎ 87-0345

방송애프터 시공의 선두업체
 인켈PA·비디오 촬영 전문
백운전자
 기술과 정성을 다하는 완벽한 방송
 효과의 만족을 드립니다.
 백정수(리노), 이순님(데레사)
 전주 중앙 성당 뒤
 ☎(0652)252-0231

(주)홍경물산전주지사(대리점)
 무공해·무독성 세제
 • 천연샴(주방용)
 • 맑은샴(세탁용)
 • 샴이랑(목욕용)
 • 아기샴(아기목욕용)
 이증배(요한) 변순옥(막달레나)
 ☎ 85-5187

명승카인테리어·세차장
 자동차 부품 일절
 자동차 상담 전문
 송 주 원(라우렌시오)
 전북은행 본점 옆
 ☎(0652)75-2270~1
 호출기 012-684-0107

5분 교리

“계명의 생활”

계명이라고 하면 우선 10 계명이 떠오른다. 천주 십계는 모세가 하느님께 받은 열 가지 계명으로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새로운 사회질서의 기준으로 삼도록 내려주신 계명이다. 하느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 백성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었다. 십계명의 첫 세 계명은 하느님과 백성의 수직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흠숭의 의무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나머지 일곱 계명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백성 상호간의 수평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생명과 재산과 가정의 보호, 부부의 신의, 증언의 진실성 등이다. 억압과 수탈을 당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해방된 출애굽 사건이 십계명의 배경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려는 인간화의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현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억압이며 하루빨리 탈출, 해방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백성과 맺은 새로운 계약의 계명은 십계명을 넘어선다. 그 계명은 오직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나는 너희에게 새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함으로써만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고 사회에 하느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나라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다. 초대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유일한 계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십계명 역시 이 사랑의 계명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윤리 지침으로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이웃을 철저히 향하는 삶 속에서 사랑이 실현되고 여기서 하느님이 함께하시며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해방과 자유의 하느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다. * 참고 자료: 하느님의 계획·십계명(책)

교 구 소 식

- ※ 축! 안용기 신부 은경축 행사: 10월26일(월) 오전10시30분 동산동 성당.
- 1.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드는 성가정 안내 강좌: 10월27일(화) 오전10시-12시30분 중앙 성당, 회비-2,500원, 강사-이민정, 문의 85-0041(사목국).
- 2. 사제 평의회: 10월27일(화) 오전10시 교구청.
- 3. 가톨릭 문우회 모임: 10월31일(토) 오후4시 교구청 별관1층 소강당.
- 4. 3젠모임: 11월1일 오후2시 교구청 별관 1층, 대상-국민학생, 중고생.
- 5.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10월30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정삼권 신부.
- 6. 사랑의 다리 후원회 피정: 11월9일(월) 오전9시30분-오후4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강사-손인숙 수녀(성심회), 대상-회원 및 관심있는 분, 회비-6,000원, 접수-10월30일까지, 문의-가톨릭 사회복지회 84-5290, 피정 관계로 월례미사는 없음.
- 7. 농산물 직거래장 개설: 10월31일-11월1일 10시-21시 중앙 성당 마당, 문의 77-1711.
- 8. 종교음악후원회 월례미사: 10월26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4층.
- ※ 축! 영명: 28일(성서문과 유다) 박중신, 한봉섭, 서정현, 장상호, 이완재 신부님.
- 성소모임 성바오로딸수도회: 11월1일 오후2시 군경묘지 앞 (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11월1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재생종이를 사용합시다

요즘은 재생종이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책, 종이, 휴지 등. 특히 한 번 쓰고 버리는 휴지는 반드시 재생휴지를 사용해 자원의 고갈을 막읍시다.

요심이 (1003) 김병오



성전 건립을 위한 바자회
별미의 음식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일시: 10.30(금)~11.1(일) 3일간
• 장소: 군산 소룡동 성당
• 주최: 소룡동 성당 사목협의회

축! 은경
안용기(가브리엘) 신부 사제서품 25주년
일시: 1992.10.26(월) 오전10시30분(미사) 낮 12시(축하식)
장소: 천주교 동산동 교회 천주교 동산동 교회 신자 일동

샤넬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바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평 화 식 당
주 한(모이세) 강혜경(세레나)
화심은천에서 진안쪽으로 200m 정도
☎ 74-3009

수삼, 건삼, 표고, 국산차 등 특산품 일절
진안특산품 유통센터
황 용 선(바오로)
전주시 태평동1가 61-8
☎ 71-6919

全州畫廊
동양화, 서양화, 고서화 매매 병풍, 액자, 수예(전시 표구 전문)
한택현(마르첼리노)
도청 옆 백번집 앞
☎ 85-2220

그릇 혼수 전문백화점
아리랑 그릇
박희제(그레고리오)
이리 허영근 약국 골목
☎ 842-4976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날마다 그날 성서귀절을 한번 더 읽읍시다.

1. 가정방문: 28일-중노18만 오전10시.
 2. 27일 어머니미사 없음: 사제평의회 관계로 새벽미사.
 3. 천사의모후Cu 월례회: 매월 둘째주 장엄미사 후 지하성당에서.
 4. 모임: ①제대회(27일 10시30분)
②빈첸시오(29일 10시30분)
③올드레아(1일 후2시)
 5. 교무금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금주청소: 중노17, 18만.
차주청소: 중노19, 20만.
- ☐ 지난주 봉헌금: 861,880원 ☐ 교무금: 1,298,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삼 인

1. 성당 보수공사 헌금: 김수영(50만원) 밑알회(48만원) 이갑진(30만원) 채용석(20만원) 이순례, 유복규(각10만원) 김순오(5만원) 허유미(만원) 누계-784만원.
 2. 별자 봉성제: 30일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3. 유아세례: 31일 후6:30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회합: ①제대회-29일 오전10시30분
②사목회-11월1일 저녁미사 후.
③대건회-11월1일 공식미사 후.
- 금주전례: 오교성, 독서-유경수씨 부부, 봉헌-성대돈씨 가족.
차주전례: 황만금, 독서-박남수씨 부부, 봉헌-오상환씨 가족.
- ☐ 지난주 봉헌금: 536,370원 ☐ 교무금: 1,037,5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다음주)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다. 4. '93사업계획서 제출: 다음주까지. 5. 교리교사를 위한 헌금: 오늘 모든미사 중. 6. 수녀원 신축헌금: 금주-73만원, 총액-3,370만원. 수녀원 완공이 얼마남지 않았습다. 신축 기도문 열심히 바치는지요? 7. 성서읽기: 음1장~10장. 8. 금주청소: 바다의별Pr. 9. 금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강덕용 ②주영래, 봉헌-황상호, 김광열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영미, 독서①한동욱 ②김근우, 봉헌-오철규, 하월봉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302,900원 ☐ 교무금: 135,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연중제30주일! (11월은 위령성월)

1. 회의: ①반장회-11월1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전원 참석바람) ②꾸리아-다음주일(11월1일)오후2시 ③자모회-11월4일(수)오전10시30분 ④사목회-11월4일(수)오후7시30분.
 2. 알릴: ①레이오 야외행사-10월25일(오늘) 공식미사 후. 장소-치명자산(단원들의 많은 참석바람) ②여성, 구역분과 단합대회-11월2일(월)아침8시 정각 출발(아침 7시40분까지 성당집결, 시간엄수함) 장소-고수동굴.
- ☐ 지난주 봉헌금: 703,300원 ☐ 교무금: 577,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오늘 공식미사 후: 요셉회, 사라회.
2. 구역장, 반장 피점: 10월30일(금) 천호성지.
3. 교무금 미납되신분 미리미리 납부바람.
4. 청소년사: 3구역 1반, 2반, 3반.

☐ 지난주 봉헌금: 598,000원 ☐ 교무금: 944,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예비자 인도에 적극 참여합니다.

1. 금주: ①성마리아 꼬미시움(후2시) ②혼인강좌(전9시30분, 가을리센타) ③나무이식작업 노력봉사바랍니다(매주주일 오후2시) 2. 혼인면담: 매주 토요일 오후4시(준비: 호적등본, 세례증명서, 혼인강좌 수료증)-결혼 한달 전까지 면담바람. 3. 9월새영제자 영세기념사건 사무실에서 찾아가십시오. 4. 예비자 교리시간: 직장인, 일반(화요일, 목요일 오후8시) 노인반(수요일 오후2시) 주부반(금요일 오후3시) 학생반(토요일 오후4시) 일반(일요일 오전9시) 5. 차주: ①올드레아(공식미사 후) ②계속글라라회(후1시30분) 6. 연도대회: 11월7일(토)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1. 모든 성인의날 대축일: 세분 수녀님 영명을 축하 드립니다.
 2. 위령의날 미사: 2일 전5시30분, 6시. 접수-1일까지. 합동위령 미사 11시에 성당묘지에서 있음. 출발 10시.
 3. 애령회 단합대회: 2일 합동미사 후, 화실 신원집에서.
 4. 제4대 사목회장 당선: 강상근(미카엘) 형제, 축하드립니다.
 5. M.E가족 총회: 26일 후8시 사제관. 나눔 공책 준비.
 6. 제대회 단합대회: 30일 전10시, 동산면. 전입신자 참여 환영.
 7. 꽃꽃이반 수감생 모임: 30일 전10시, 뜻있는 신자 환영함.
 8. 가정방문: 29일 전9시, 6구역1반, 후3시 6구역2반.
 9. 자선익날: 28일 미사중에. 10. 교무금 봉헌주일: 25일 주간에.
 11. 회의: 올드레아-25일 공식미사 후. 성가대-어머니미사 후. 꾸리아-1일 후2시30분. 1인1단체 가입을 권합니다.
- ☐ 지난주 봉헌금: 1,021,450원 ☐ 교무금: 1,337,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예비자교리반 첫 모임: 오늘 미사 후-축하합니다.
2. 자모회, 청년회: 오늘 미사 후.
3. 가정방문: 거성그린맨션-27일(화) 1동, 28일(수) 2동, 남양왕실APT-29일(목) 1동, 30일(금) 오후2동.
4. 반모임: 28일(수) 오후-동산APT
5. 사목회: 다음주일 오후8시.
6. 전례자모임: 다음주일 미사 후-관심있는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7. 남성 성가연습: 매주 목요일 미사 후-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안옥기, 김영덕. 차주전례: 최정순, 독서-봉헌-김희숙, 최호호.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 실

※ 오늘은 연중 제30주일
-모임안내-

1. 유아세례: 오늘 오후4시(사무실에 접수)
 2. 꾸리아: 28일(수) 오전10시.
 3. 환자봉성제: 다음주 화요일(11월3일)
 4. 안나요셉회: 11월1일(주일) 오전12시.
 5. 성모기사회: 11월7일(토) 10시30분.
- ※ 교무금납부가 저조합니다. 11월은 교무금을 납부하는 (주)달입니다. 적극 협조하시 바랍니다.
※ 설문지는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레이오성지순례: 11월8일 07:00 목화APT 사거리에서 출발(점심지참)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사무실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 ※ 경축! 본당의 날
- ①주일미사 및 견진성사-10:30~12:30
 - ②나눔의 잔치-12:30~2:00
 - ③구역대항 줄다리기-2:00~4:00
1. 자모, 성모, 성심, 요셉회 단합대회: 26(월) 오전8시. 장소-속리산
 2. 모임안내: ①29(목) 저녁7:30-사목회 ②반회장준비모임-30(금)10시미사 후.
 3. 사목회 각 부장님들은 93년도 행사계획 및 예산안을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차주모임-꾸리아. 신축헌금봉헌액-1,290,000원
금주전례: 해설-점이룡, 독서-①안남근 ②정영숙, 봉헌-안내-유우경 부부, 강인성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조용기 ②한정숙, 봉헌-안내-이종표 부부, 정효현 부부.
- ☐ 전교주일 헌금: 1,105,060원 ☐ 교무금: 1,473,000원